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 조건 없는 조속 승인 건의

202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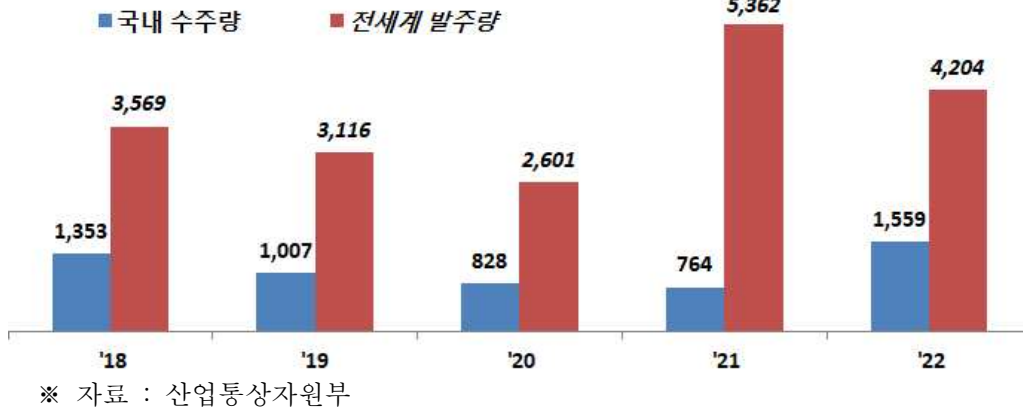
- 건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 조건 없는 조속 승인 건의

I.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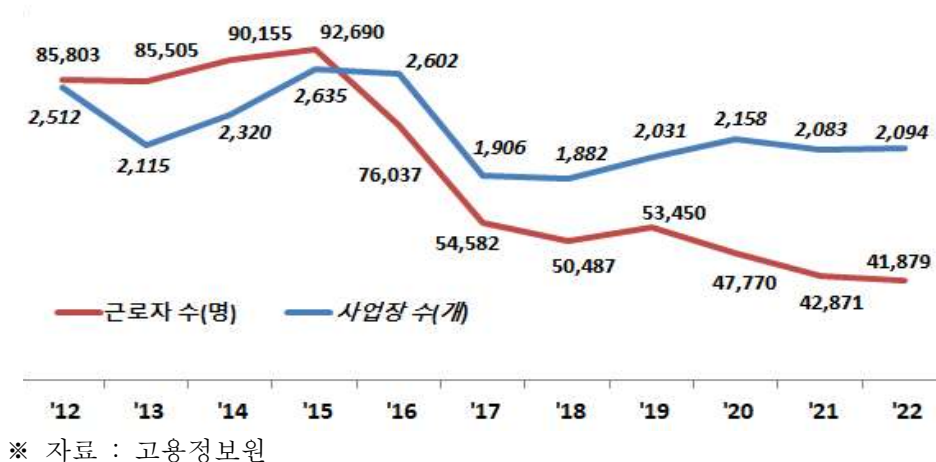
- 오랜기간 침체일로를 겪어온 국내 조선산업이 글로벌 조선업황의 회복으로 이른바 ‘슈퍼사이클’에 진입함에 따라, 동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영위해온 경남의 기업과 지역민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

선박의 전 세계 발주 및 국내 수주실적 (단위 : CGT¹⁾)



- 하지만 가파른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조선업 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는 과거 호황기 수준으로의 회복이 더딘 상황임.

경남지역 조선산업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추이



1) CGT(표준선전환톤수) : 선박의 화물 총중량에 여러 가지 선종별 계수를 곱해 산출한 톤수

- 다행히 최근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주)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조선업황의 ‘슈퍼사이클’에 경남 조선산업이 적극적으로 편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음.
- 현재 최종투자자 선정과 본계약 체결 이후 가장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는 기업결합심사의 대상 국가 8개 국 중 유럽연합을 비롯한 7개국에서 승인이 이루어졌고, 현재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만이 남은 상황임.
- 하지만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군함용 무기설비를 제작해온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군함 부문을 전방통합함에 따라 타 군함용 선박건조 기업에 대한 봉쇄가능성을 우려해 시정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²⁾
- 군함용 무기설비의 경우 일반 시장논리가 아닌 정부가 최종 수요자로 참여하는 특수성을 띠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하는 경쟁 제한이나 정보 비대칭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사료됨.
이는 삼성전자에게 있어 애플사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사이면서도 반도체와 어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부문에 있어서는 중요한 고객사인 것처럼, 한화그룹의 군함용 무기설비에 있어서도 국내 군함용 선박건조 기업들은 기업결합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이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거래처이기 때문임.
- 또한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주) 인수에 대해 승인 절차 이외에 타 기업에는 없는 감시체계를 따로 두거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통제하는 등의 절차는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내는 일이라 사료됨.
- 이에 오랜기간 어려움을 겪어온 경남 조선산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주) 간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조건 없는 승인이 조속한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조선일보(2023년 4월 9일자),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조건부 승인 전망…차별금지 이행 방안 요구할 듯’

II. 건의

- 경남지역 조선산업의 부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주) 인수 승인이 조건 없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23. 4.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구 자 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구 자 천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이 영 춘

통영상공회의소 회장 이 상 석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서 희 영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박 병 대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박 명 진

밀양상공회의소 회장 손 영 준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박 계 출

거제상공회의소 회장 김 환 중